

2017년 10월 8일 주일설교
와싱턴한인교회 김한성목사

“감사의 항아리”
“Jar of Thanksgiving”
마가복음 Mark 12:41-44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와싱턴한인교회 설립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66년을 돌아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뭘 감사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감사거리를 못 찾으셨습니까? 수고하고 애만썼지, 빈손, 허탈한 마음으로 지금도 추수의 들판을 거닐고 계십니까?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뭐 큰 일을 이룬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는 물음입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도, 삶도 어렵고, 쉬운 건 하나도 없고, 여기저기 숨넘어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Have you been well in God’s grace in the past week?

Today, we are celebrating and giving thanks for the founding of KUMCGW.

Looking back past 66 years, I give thanks to God first.

By any chance, have you been looking but still not found anything to be thankful for yet? Are you still wandering around the harvest field with empty hands and hollow heart after working so hard? Are you thinking, “I have no significant change or accomplishment, what do you want me to be thankful for?”

Beloved friends, I can totally identify with your question. You have been working hard for another year. There is nothing easy, economy and our life is going downward. All we hear is people complain here and there.

주님, 감사수건에 물기라도 좀 남아 있어야, 쥐어짜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간신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교우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 질문은 담임목사로, 또 설교자로 거듭 물었던 솔직한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의 이미지가 제 머리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성서 곳곳에 등장하는 항아리입니다.

오늘은 항아리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합니다.

Lord, we need some moisture in the thanksgiving towel for any water drop when we squeeze it. It has been a difficult journey to get here for everybody.

‘How do I relay a message of thanksgiving to this congregation?’

This is my honest confession when I asked myself repeatedly as a lead pastor and a preacher. As I was reading today’s scripture, an image appeared in my head. It was a jar that is mentioned at many different places in the Bible.

I want us to think together about a thankful heart through the jar.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무르 익어가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손발 씻는 물을 담아두는 묵직한 돌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지요.

"아구까지 물로 채워라. 자, 물을 떠다가 잔치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줘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겉모습만 변한게 아니지요. 화학적인,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맛과 향, 색깔 모두 다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는 새 사람, 주님께,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이 됐습니다.

There was a wedding. The party was maturing, but they ran out of wine.

There were six heavy stone jars to keep water for washing hands and feet.

'Fill them to the rim. Now, scoop it out and serve the people.'

When water turned to wine, it's not just a change of color and looks. It had the chemical change, and the fundamental change. Everything changed, the taste, order, and color. What does this mean?

We had to die eternally because of our sins, but we have earned new lives because of our Lord. We now have new lives facing only the cross bound by the Lord and the Holy Spirit leaving the world behind us.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의 항아리'를 경험 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파묻혀져 있던 그 쓴 뿌리 다 뽑아 버리셨습니까?

예전엔 쉽게 화내고, 절망 했지만, 이젠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습니까?

가장 벅찬 감격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한번 포도주로 우리 신분이 바뀌면 다시는 발씻는 물로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다시 정욕과 욕망의 흙탕물로 변질 되려고 하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포도주가 다시 물로 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다시 예전의 흙탕물로 되돌아가 가지 않은 비결이 바로 감사입니다.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have you experienced the 'changing jar' that changes water into wine? Have you plucked out the bitter roots that are embedded deeply in your heart after you met Jesus?

You got mad easily and felt despaired before, but are you now praising and praying all the time? The most moving feeling is the joy of salvation. Do not ever let anyone take that away from you. Once our status has changed to wine, we can never go back to washing water for feet. Why do we want to be changed to muddy water of lust and desire? Not only water changing to wine is a miracle, but also wine changing to water is a miracle. The key to not returning to old muddy water is thanksgiving.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손만대면 순풍에 돛단듯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늘이나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에 먼저 감사하십니다.

가장 깊은 감사,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상황은, 형편은, 도저히 감사 할 수 없지만, 먼저 감사 하십시오.

Thanksgiving is not an end but the beginning!

We do not give thanks because everything is going well as a smooth sailing.

Let us give thanks for the love of our Lord and faithful God tha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The deepest, and most fundamental thanksgiving is thanksgiving for the love of the cross. Even if our situation and circumstances do not let us give thanks, let's give thanks first.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뀐 변화의 항아리 내려놓고, 또 다른 항아리 만나러 가볼까요?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생활이 아주 복잡한, 동네에서 아예 대놓고 손가락질 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인생의 무거운 항아리를 이고, 지고, 끌고, 우물가에 나옵니다.

물을 달라던 예수가 오히려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Now, let's put the changing jar that changed water into wine aside, and go to another jar. Lord is waiting by a well to meet a Samaritan woman. She was a pathetic woman with a complicated personal life, and people in the town pointed fingers at her.

Just like any other day, she held the heavy jar of life on her head and came to the well.

Jesus first asked for some water, but gave her never thirsting water of eternity.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뛰어 내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소!' 복된 소식을 증거합니다.

물 항아리도 잊어버린 채, 가가호호를 누비며, 예수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물 항아리는 여전히 여인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물 항아리를 던져 놓을 수 있었을까요?

더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The woman left her jar and ran to the town.

She witnessed the good news to them, 'I met Christ!'

She forgot about her jar, and ran around to the houses to give the news of Jesus.

But, even at that moment, the water jar was something she needed for her life.

Then, how could she have just tossed away her water jar?

It was because she met Jesus Christ, who is more precious, the most valuable.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좀 그 무거운 '인생의 항아리'를 내려 놓으세요.

더 이상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감사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더 이상 벌써 지나간 시간에 얽매여서 과거의 종으로 살지 마세요.

감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덩어리에 마음을 뺏기고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이 뭔지 아세요? 황금도 아니고 순금/백금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감사 하십시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please put down that heavy jar of burden. Don't let such burdens in your life prevent you from giving thanks any longer. Stop living like a slave tied down to your past any longer. Thanksgiving is free from the past. People lose hearts to pieces of gold. Do you know what the most precious gold is? It's neither pure gold nor platinum gold. It is now. Let's give thanks right now!

포도주 항아리, 사마리아 여인 물항아리, 또 다른 항아리 만나 볼까요?
기드온이 말씀에 의지해 아말렉 군대와 싸우러 나갑니다.
삼 백명 군대가 뭘 들고 전쟁터에 갔습니까? 보세요, 여기 또 항아리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횃불들고 나팔불며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항아리를 부수면서, 여호와와 이름을 높이 선포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미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서 찬양합니다.
아직도 고난의 긴 터널에 갇혀 계십니까? 이제 좀 끝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Following the jar of wine and the Samaritan woman's water jar, let's take a look at another jar in the scriptures. Trusting the word, Gideon went to a battle to fight the Amalekites. What did the army of three hundred men take with them? Here, another jar appears. Holding torches in their hands, Gideon's army blew their horns and smashed their jars. As they smashed the jars, they proclaimed the Lord's name. The outcome of a war relies on Him. They praised God beforehand for the victory which was already given. Are you still in a long tunnel of suffering? Are you not ready to put an end to it? Are you by any chance pleading to God with a desperate heart?

아직까지 내가 붙잡고 의지하던 그 항아리를 지금 깨뜨리십시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서 감사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이 없는 감사는 '가짜 감사' 입니다.
감사한 척 시늉만 하는 것이지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Please smash the jar that you have held on to and relied on now! Faith means obedience. Only when we obey can we finally give thanks. **Without faith, we can't obey. Thanksgiving without obedience is false.** It is just pretending to be grateful. We know it - so does God.

때때로 나/자아라는 항아리가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영광의 횃불이 밝히 드러나려면, 반드시 내 항아리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 만나 구원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호적이 옮겨졌습니다.
변화의 항아리를 체험하고, 내 인생의 항아리는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감사가 바싹 말라 버렸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항아리가 부서지고,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ometimes the jar of our ego is too hard for God's glory to be manifested. In order for the torch of glory to be burning bright, our jar must be broken first. We met Jesus and became

saved. Our names previously written in the book of death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book of eternity. After we experienced the jar of change, we surrendered the jar of our lives at the foot of the cross. Nonetheless, why is our thanksgiving not plentiful? It's because we still have too much of ourselves in us. It's because our jars still aren't smashed.

오늘 본문에도 향아리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헌금함, 헌금 향아리입니다.

주님 당시에 여성들은 성전에서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성전헌금, 십일조, 구제헌금등 각종 헌금을 넣는 헌금함들이 있습니다.

입구는 나팔모양으로 생겼는데, 성전에 들어가며, 각자 헌금을 했지요.

주님께서 헌금 향아리 맞은편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조금 넣었나, 액수를 보신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자랑스럽게 큰 돈을 헌금 향아리에 넣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헌금이 주님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만 성전에 나왔지, 그들의 삶이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불편한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There is a jar in today's scripture also. It is the treasury chest for offering. In Jesus's time, women could not access beyond the Court of the Women inside a temple. There were all sorts of treasury chests for tithes, offerings for the temple and for the poor, and so on. These were containers with trumpet-shaped mouths, where people put money as they entered the temple. Jesus sat opposite the treasury and watched people put offerings. Jesus didn't pay any attention to who put money in or how much they put in there. He penetrated people's cores. He looked at their hearts, not their money. The Pharisees proudly put a large amount of money in the receptacles. Such large amounts did not move Jesus's heart at all. Rather, Jesus felt holy anger towards them. Why was this so? It's because their lives were not upright. They came to the temple physically without offering themselves as living sacrifices. Matthew vividly records Jesus's displeasure.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마태복음 23:27)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are like whitewashed tombs, which look beautiful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are full of the bones of the dead and everything unclean." (Matthew 23:27)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처럼 흰가운을 입고 다녔습니다.

치렁치렁 땅에 끌리는 긴 옷자락, 곳곳에 새겨진 말씀. 경건의 모양만 갖췄습니다.

잔치가 열리면 높은 자리에 앉고, 랍비여! 선생님이로 늘 존경받길 원했지요.

절기마다 금식하고, 구제헌금도 합니다. 그들의 기도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한 시간씩 세 번 기도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 시간 기도 전후로 또 한 시간씩 묵상도 합니다.

Scribes and Pharisees wore white robes like priests, with the hems of their long robes grazing the ground and patterns from scriptures adorning all over the fabrics, but this was only the *look* of holiness. They wanted to sit at the highest seats at feasts and be respected as rabbis all the time. They fasted every season and gave offerings for the poor. How about their prayers? They prayed three times a day on schedule, each one hour. Is this all? They also mediated for an hour before each prayer.

주님은 경건한 율법학자, 헌금 많이 하는 부자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답은 과부의 두 렵 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한 여인, 과부가 정성스럽게 동전 두 닢을 헌금 항아리에 넣습니다.
성서에 두 렵돈이라 기록돼 있는데, 하루 임금의 1/64 에 해당하는 적은 액수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 처럼, 아마 이 과부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Jesus doesn't praise pious teachers of the law or the wealthy who offered abundantly. On the contrary, He warned them that they would meet judgment in hell. Why did He do so? The answer is the widow's two small copper coins. A shabbily dressed woman, a widow sincerely put two coins in the offering container. The Bible records that it was "two mites," which was a very small amount, probably 1/64 of a daily wage. The Lord seemed to have waited for this widow just as He had waited for the Samaritan woman.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마가복음 12:43b-44)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모든 것 모두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Truly I tell you, this poor widow has put more into the treasury than all the others. They all gave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everything—all she had to live on."
(Mark 12:43b-44)

주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 액수의 차이를 보신게 아닙니다. 전부를 드렸는가?

여인은 두 렵돈을 드리며 동시에 자기의 삶 전체를 헌금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 미래의 모든 계획을 항아리에 담아 주님께 드리십시오!

신실한 봉헌은 얼마를 드렸는가 아니라, 얼마를 남겨 놓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삶 전체를 다 드린 것입니다. 봉헌 하실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십니까?

아니면 아까운 마음으로, 쓰다 남은 것을 드리십니까?

드리고 나서 아직도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이 남아 있다면, 다 드린 것이 아닙니다.

The Lord did not see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offerings. Did you give it all?
When the woman made the offering of two very small coins, she put her entire life in the offering jar.

It was like confessing “not only my money but also my whole life is the Lord’s”.

Put all the plans of your life and future into a jar and give it to the Lord!

Faithful offering depends not on how much you have given, but on how much you have left.

This woman gave everything she had with joy.

It was her whole life. When you make an offering, do you give it to the Lord in this way?

Or do you give whatever is left after your spending?

What is important is how much is still left for you after your offering?

If I still have my talent, my time, my substance, and my things, that means I didn’t give all.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며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7)

Each of you should give what you have decided in your heart to give, not reluctantly or under compulsion,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2 Corinthians 9:7)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드릴 때 얼마 만큼 드릴지 누가 정합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정합니다. 어떻게 정합니까?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따라 감동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Who determines how much we will give our time, talents, and materials?

The Lord? The Holy Spirit? Or God? No, I decide. How do we decide?

Delight by the Grace determines .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누가복음 12:48b)

From everyone who has been given much, much will be demanded; and from the one who has been entrusted with much, much more will be asked. (Luke 12:48b)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됩니까? 저도 힘들어요. 적당히 할게요.’

이런 마음은 결코 다 드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꾸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적게 드리려는 마음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것도 살짝 떼어 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을 감찰 하십니다.

‘God, why do I have to give so much? I’m tired too. Don’t let me stretched too much.’

This mind would not let us give whole-heartedly.

It is the mind that keeps distinguishing mine from God’s, and that makes me give God as little as possible.

That’s the mind that seduces us to steal God’s, if possible.

Do not think you can deceive God. God sees through our hearts.

기쁨으로 감사의 나무를 먼저 심으십시오!
모두 다 내어 드리는 감사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먼저 결단하십시오!
Plant trees of gratitude with joy!
Please enjoy the joy of giving thanks by offering all you have!
Decide first with faith and obedience!

자 또 멀리서 향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생을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던 값비싼 향유 옥합 향아리를 주님을 위해 깨뜨립니다.
I hear a jar cracking from afar.
She broke up an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which she had collected for her whole life as a wedding dowry, for the Lord.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4:9)
Truly I tell you,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Mark 14:9)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모든 욕심과 집착을 다 버리세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할 때 시작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향아리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향아리를 이제 내려놓고 깨뜨리는, 다 드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t is so beautiful to give everything. Give everything to the Lord. Give up all your greed and obsession. True gratitude begins when we transfer all of our ownership to the Lord. We need a jar of change where water becomes wine. We need to make a decision now to break the jar of our own and offer all we have. May you be blessed in the name of the Lord.